

수신 : 중랑구의회 의장

제목 : 꿈나무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주민공동 진정서

더욱 발전하고 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중랑구의 의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꿈나무길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앨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주차를 할 경우 단속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중랑구의회 의장님께 진정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살피시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안정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지역은 일반 다가구주택 지역으로서 차량통행이 별로 없고,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주

민들도 대부분 골목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느닷없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주민들은 그 많은 차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어떤 정책을 급격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지역에는 공영주차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105번지와 104번지 사이 복개천과 87번지 주변 요람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지역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에 주차할 방법도 없습니다.

셋째, 해당지역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커다란 버스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없앤다 해도 주민들은 그곳에 지금처럼 주차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며, 만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만 원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주변 107번지의 삼성어린이집 앞과 한남프라자 사이에 있는 길도 주차구획선을 지웠지만, 불법주차는 더욱 고착화되고 차들만 더 많이 통행하게 된바 있습니다.

즉, 해당지역의 주차구획선을 모두 지우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차들이 다니게 될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어린이들을 더 위험하게 하는 아주 기막힌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해당지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핵심구역으로서, 건축행위도 금지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실정인데,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만 들먹이면서 지역 특수성과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만 시행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철회해주실 것을 구의회 의장님께 간절히 진정하오며, 우리 주민들의 요청이 반드시 반영되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 2. .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105-62호

주민 민성근 외

주민  명

「답변사항」

1. 민성근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 고객님의 84명의 주민이 상봉2동 87번지에서 105번지 간 꿈나무길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삭선 결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철회 또는 주차문제의 해결 대안마련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꿈나무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삭선결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우리 구의회에서 고객님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규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살펴 본 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 꿈나무길 어린이보호구역은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여 왔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

다. 중랑구청(교통지도과)에서는 꿈나무길의 주차구획선 6면이 삭선할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거쳐 삭선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알려드리며, 주택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및 조경공사 비용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사오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법규로 인해 고객님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또한 고객님의 고충을 구의회 전 의원들에게도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랑구의회 사무국(담당 :강문수 2094-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